

현명한 CAD S/W의 선택

A Wise Choice on CAD Softwares

조민행 / 오현 · 삼 · 구성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Min-Hyaeng

어느 날 신문지상과 방송매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니, 정부기관이나 심지어 단속 책임을 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조차도 불법복제S/W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조치는 우리 나라가 WTO와 선진국의 사랑방이라는 OECD에 가입할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 아니었던가 싶다.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사무실들 보다 고가의 CAD S/W를 사용해 작업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고 그 심각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이 드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노파심이 작용한 것은 아닐텐데, 주변에서는 너무나 태연한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몇몇 지방에서는 불법S/W단속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을 내게되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하고 보면 팔자만의 소심함만은 아닌듯 싶다. 더군다나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어느 정도 불법S/W를 사용하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걱정을 지나 불안하기까지 한 것이 요즈음 심정이다.

불법복제S/W하면 막연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CAD 및 CAD와 연관된 지원S/W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 생각된다. 그러나 불법S/W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광범위해서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모든 비공개S/W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PC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WINDOW 및 DOS를 비롯하여 사무용에 필요한 한컴사의 한글, EXCEL, CAD, CAD관련 지원S/W, 심지어는 게임 S/W 등에 이르기까지 각자 개인의 사용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많은 S/W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가장 고가인 CAD가 아닐 수 없다.

CAD가 제도관을 대신한지도 15년 이상이 지났다. CAD를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급된 것 또한 사실이다.

컴퓨터와 CAD, 참으로 고마운 물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필요성 뒤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다. 15년 전 우리는 너무나도 컴퓨터의 속성을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손쉽게 비용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관념으로 하나의 회사제품에 길들여지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는 근래 몇 년 동안 연중 행사하듯이 그들의 상업주의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고 지금도 지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개략 한 회사제품이 90%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을지, 그들의 국가에도 우리와 같이 풀버전만 공급하고 있는지,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며 종속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는 CAD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대안을 위한 몇 가지 기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자신에 맞는 S/W의 실제 파악부터 하자.

우선 CAD는 고가CAD와 저가CAD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고가CAD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D기능작업에 충분한 3D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CAD라 한다면 이와 달리 저가CAD는 2D작업기능에 간단한 3D기능과 몇 가지 편리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계작업은 저가CAD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로 2D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별로 쓰지도 않고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고가CAD를 사용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닭 잡는데 소 잡는 도끼 들고 닭을 잡은 꼴이 된 것이다.

둘째. 컴퓨터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우리가 CAD를 처음 접했을 때는 DOS환경에서 작업하는 컴퓨터환경이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무실에서 DOS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WINDOW환경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DOS환경에서의 S/W 및 주변기기를 이제는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싫다 하더라도 WINDOW환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지속적인 관심만이 해결책이라 보아야 하겠다.

셋째. 기술종속 및 상업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제품에만(90%이상으로 추정) 편중하여 기능 및 가격, 사후관리(After Service) 면에서 선택권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녔다고 생각된다. 과연 어느 나라에 우리처럼 한 제품이 90%이상 시장을 점유한 나라가 있겠는가? 우리만의 뼈아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컴퓨터와 CAD를 버리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현명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다행히 국내에서 요즈음 보급되고 있는 CAD

를 골고루 점검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DOS용은 없었고 모든 CAD가 WINDOW환경으로 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쩔 수없이 WINDOW환경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CAD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접근성 및 호환성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민감한 사항이라 제품명 및 상세한 내용을 기술 못함을 양해 바람.)

기능성

고가CAD, 저가CAD할것 없이 모든CAD가 WINDOW환경으로 출시되고 있었으며 WINDOW환경에서의 기능은 저 고가를 막론하고 원활함을 느꼈고, 다만 저가와는 달리 고가CAD는 3D기능이 월등했다고 판단되며 저가CAD들은 고가CAD와 달리 3D기능은 약했으나 각자 나름대로의 편리한 부가기능을 갖고 있어 작업성 및 기능성이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특이한 점은 소수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CAD관련 지원S/W가 자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저가CAD도 2D작업이 추가되는 우리사무실 작업환경에는 무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접근성

DOS환경과 달리 WINDOW환경에서는 작업창의 크기가 작아져야 하므로 적응하는데 시간이(약 1주일)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단축키 사용 기능은 모든 제품 공히 창안의 환경(Configuration)을 통하여 각자의 습관에 맞게 바꿀 수 있으므로 접근성에 대하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호환성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CAD와의 호환성 역시 모든 CAD 공히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국산CAD의 호환성이(글씨FONT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WINDOW환경에서는 모든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사무실의 작업정도 및 부가기능의 취향, 가격에 맞춰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한가지 주의할 점은 또다시 과거와 같이 기술종속이 되지 않으면서 외국 상업주의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객인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어야 하겠다.